

# 국민의힘, 10여명 출마 전망... 민주당, '李 독주' 속 견제

## 21대 대선출마 각축전

국민의힘, 오늘부터 후보 등록  
오세훈 불출마에 지지자 흡수 '주목'  
김문수-나경원, 연대 행보 보여  
李, 대권 행보 본격화... AI 현장 방문  
조국혁신당, 선출 없이 野 후보 지원  
김경수, 출마선언... 비명계 구심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맥도날드 중앙대학교점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13일 안규백 의원을 특보단장, 박근택 의원을 법률지원단장, 김병기 의원을 조직본부장, 박상혁 의원을 홍보본부장, 강득구 의원을 현안대응TF단장으로 추가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성장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 대표는 이번 일정에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친문(친문재인)계 적통이라고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비명계 구심점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다른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에서 10명 안팎의 주자가 출마표를 던지며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15일 제21대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경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일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대선 경선 도전 후보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룰에 반대하

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시 최종 2인이 최종 경선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확장성이 있어 유력 주자로 평가받던 오시장이 불출마 하자, 경선 구도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어느 후보가 흡수해 두각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오시장을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로 평가받는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

원 의원은 전날(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연대' 행보를 보였다. 두 주자는 지난 11일 청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연금개혁 규탄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영남권 시민을 만난데 이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경선 승리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비전과 가치, 캠프 인선 등을 모두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있다. 조국혁

신당이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의 후보가 범야권의 대표 대선 후보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는 현역 의원 14명이 경선 캠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캠프 좌장엔 5선에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호식 의원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과 재선인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밖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정부전략본부장을, 4선인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캠프 대변인, 이혜식 의원이 비서실장, 이소영 의원이 TV토론단장을 맡았다.

## 양당, 당내 경선서 '민심·당심' 모두 듣는다

국민의힘, 경선을 비상대책위 의결  
민주당, 권리당원 50%·여론 50% 일부 후보들, 경선을 결정에 '반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정당 모두 민심과 당심을 모두 청취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총 세 차례 경선을 치러서 4명, 2명, 1명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2명을 추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다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엔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물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만 선택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경선룰을 마련했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결을 거쳐 최종 경선룰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



황우영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 투표권은 12개월 전에 당원이 돼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여론조사는 각 50만 명씩 두 차례 실시한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는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반대한 이들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반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민심 반영 비율을 주장한 후보들은 현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폭넓게 반영해야 보수 진영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이 9일 오후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다시 세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민심 100% 반영을 요구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일부 주자들이 경선룰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마치 '추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경선룰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헌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경쟁력 약해  
韓 출마요청 성명에 50여명 동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국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모습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할 만한 이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커지자 자체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해당 성명에 현역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회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명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경제, 통상,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인품, 실력, 경륜은 혼돈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보수 진영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룰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미 대권 출마 의사를 밝혔

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출마 철회 선언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판이 요동칠 정도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후보 중에 이를 누를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호남 출신인데다, 정통 경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대통령직을 지명하는 등의 모습이 '강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총리라는 점, 심판이 선수로 뛰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반명연대, 비명연대의 진영을 폭넓게 하지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큼 중요하지를 생각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내에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두 차례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외부에서 사실상 영입된 경우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2대 총선을 이끌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입당했다. /서예진 기자 syj@